

# 남원의 랜드마크 '함파우 소리체험관'

농악과 소리 외에도 관광·체험 할 수 있는 종합관광 중심지

남원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는 함파우 소리체험관이 농악과 소리뿐만 아니라 관광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종합관광 중심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함파우 소리체험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매주 금·토(동절기 오후5시, 하절기 오후7시)에 한옥 숙박동 앞마당과 공연장에서 사물놀이 상설공연을 펼치고 있으며, 특별수시공연 및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관광객들의 관광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방학을 맞아 농악캠프(단체, 청소년 대학생 캠프)가 진행되고 있으며,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배우기(농악, 사물놀이, 난타, 관소리 등)와 만들기(미니장구, 천연염색 손수건, 스카프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당일, 1박2일, 2박3일 일정의 남원 해설관광 연계프로그램(관광지와 맛집을 전문해설사와 함께 관광하고 한옥체험 숙박), 천문대 연계프로그램(가죽단위 한옥체험 전문대 별 관측, 혼불문화 체험(혼불 배경지 답사 및 한옥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농악공연은 남원시립농악단의 사물놀이와 관소리 공연, 버나체험(농악 중간에 접사놀이),

남원농악 판굿 등을 펼쳐 숙박객 및 체험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00여회에 이르는 공연을 마련해 관광객들에게 남원농악의 우수성과 국악의 고장 남원의 이미지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남원=김기우 기자



함파우 소리체험관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매주 금·토(동절기 오후5시, 하절기 오후7시)에 한옥 숙박동 앞마당과 공연장에서 사물놀이 상설공연을 펼치고 있다.

## “자화상을 통해 나를 만나다”

정읍시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 기획전시

나는 누구일까, 내 안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된 그림이 '자화상'이다. '자화상의 아버지'라 불리는 뒤러(Dürer, A.)를 비롯 렘브란트(Rembrandt, H. van R.), 고흐(Gogh, V.van.), 피카소(Pablo Ruiz Picasso) 등 걸출한 화가들의 자화상이 유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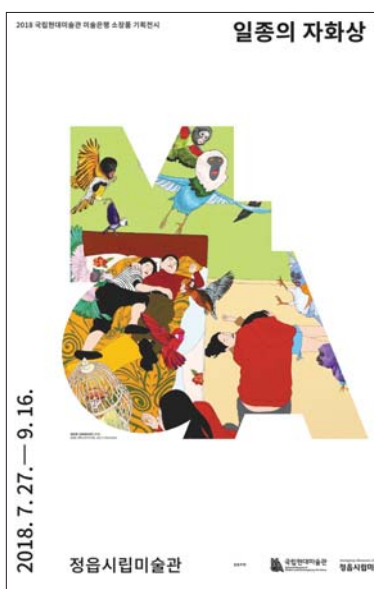
'자화상'을 주제로 한 기획전시전(展)이 정읍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 달 27일 시작된 전시는 9월 16일까지 이어진다. 전시명은 「2018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 기획전시」 '일종의 자화상'이다. 모두 40점의 작품의 만날 수 있다. Self Portrait, 변주: 시대의 자화상, 응시 세 개의 주제로 구성돼 있다. 어렵지 않은 주제와 상대적으로 난해하지 않은 작품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인지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 무더위를 식히면서 예술을 즐기고 있다. 지난 주말까지 모두 5927 명이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Self Portrait에서는 '나는 누구인가'로 시작되는 존재론적 물음부터 작가의 내적 욕구가 표현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따뜻한 색감에도 미묘함을 불러일으키는 '새장(이소연)'이

나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고, 혼란스런 내면을 만난 듯한 '쿠루쿠루(김혜나)' 앞에 머문 발길들이 많았다.

변주: 시대의 자화상'에서는 시대적 상황을 만날 수 있다. '간만에 종식이라는 술자리...(변운희)'는 80년대 학창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살아있는 인물들의 표정에 반가움이 밀려온다. '잡초호신술비전-초식 24(김제민)'는 종자와 해학에 웃음이 내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든 속수무책으로 살아가는, 그저 주어진 상황에 눈치 보며 살아갈 수 밖에 없는 현대인들의 초상을 보는 듯 하다.

'응시'는 '나' 자신과 사회에 대한 바라봄을 얘기한다. 앞의 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품은 적다. 편안함을 주기 때문인지 정보영의 'Looking'을 오래도록 응시하는 관람객들이 많았다. 전체적으로 어두운 공간, 두 개의 촛불이 밝히는 빛과 의자,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 건 간에 내밀한 친숙함과 따뜻함이 전해온다. 이들과 빛 그 중간 쯤에 편안히 누워 있다 보면 품과 마음에 에너지가 다시 채워질 것 같은 느낌이랄까? 번잡한 하루의 일상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잠시 숨을 고르는 순간, 그때의



내면의 풍경이랄까? "유난히 눈길이 가는 그림이 있다면, 당신과 그 그림과 닮았기 때문이다"는 말이 있다. 지금 당신은 누구이고, 당신 내면은 어떠한가? 궁금하다면 여름이 가기 전 정읍시립미술관에 들러 보는 건 어떨까? /정읍=김대환 기자



임실목재문화체험장에서 재경전라북도민회 출향도민 자녀들 43명이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천년전통의 목구조의 우수성을 학습했다.

## 더위잡는 '임실목재문화체험관' 각광

체험객 급증...개장 이래 가장 많은 방문객 기대

임실목재문화체험장이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최고의 체험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13일 군에 따르면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임실목재문화체험장을 찾는 체험객이 급증하면서 개장 이래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추진 중인 올해 청소년 목공예체험 프로그램은 10월까지 총 40회에 걸쳐 매회 30명의 예약을 받고 있는 가운데 9월 말까지 이미 예약이 완료됐다.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단위 체험객들에게 호응도가 무척 높아 이미 9월까지 예약이 끝난 상황이다.

이달에는 재경전라북도민회 출향도민 자녀들 43명이 체험장을 방문하여 한옥으로 지어진 건축물을 돌아보며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천년전통의 목구조의 우수성을 학습했다.

또한 체험실에서는 벽시계, 트레이 등 DIY 목공활동으로 목재를 이용한 다양한 체험실습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 중 한 청소년은 "부모님 고향을 찾아오게 된 임실목재문화체험장에서 목재가 탄소와 에너지를 줄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건강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방학을 맞아 체험교육을 통해 좋은 추억을 만든 것 같아 흐뭇하다"고 말했다.

또 청소년들의 방학이 시작된 지난달 말부터는 평화지역아동센터, 열림지역 아동센터, 상록수지역아동센터의 원생 100여명과 임실드림스타트 청소년 90여명 등이 연일 방문하고 있다.

이들은 청소년목공예체험 프로그램인 우든박스, 독서대 만들기 등을 체험하며 목재이용과 탄소절감에 대한 학습으로 더위를 잊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설정 스님 "12월31일 총무원장직 사퇴"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사퇴한다.

설정 스님은 13일 오후 2시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어떤 오해와 비난이 있더라도 종단 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고 오는 12월 31일 총무원장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정 스님은 사유재산 은닉과 은처자 의혹 등 현재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고 악의적으로 조작된 것"이라며 "종단 안정을 위해 스스로 사퇴하고자 했다"

만, 기득권 세력에 의해 은밀하고도 조직적으로 견제되고 조장되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사퇴만이 종단을 위한 길이 아님을 깨닫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남은 기간에 각종 의혹을 명백히 밝혀 한 점 부끄러움을 남기지 않겠다"며 "사부대중의 개혁에 대한 열망과 뜻을 담아 종한종법을 재정비해 조계종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